

제목: “인공지능 개발,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은가?”

202310795김준호

1. 서론:

문제상황-최근 챗gpt개발과 함께 인공지능개발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런 A.I의 발전이 우리의 편한 삶이 만들어 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로 인하여 일자리대체의 위협, A.I의 통제불가능성 등 무시하지못할 문제점들도 생겨나고 있다. 과연 인공지능의 개발을 지지해야 할까?

안내문구- “ 지난달 공개된 AI 개발 일시중지 공개서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반대의 이유가 뭘까. 지난 3월 29일 미국의 비영리 단체 퓨처 오브 라이프 인스티튜트(Future of Life Institute)는 '거대 AI 실험 일시중지 공개서한 (Pause Giant AI Experiments: An Open Letter)'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공개했다. 서명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창업자 등 IT업계 경영자들과 유발 하라리 등의 연구자들이 참여했으며, 14일 기준 2만 5천 명이 서명에 참가한 상태이다. 서한에서 전문가들은 AI의 위험성이 현재 통제 불가능이며, 이에 전 세계의 AI 개발사들은 6개월 동안 'GPT-4' 보다 강력한 인공지능의 연구를 잠시 중단하고, AI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코리아 현기호기자 2023.04.14. 11:27 "AI 연구개발 중단하자" VS "계속해야" 유명CEO·석학 찬반논쟁 가열 기사 중](#)

2. 본론:

2-1 (소주제)-인공지능개발 반대의 첫 번째 이유는 일자리대체 문제이다. A.I개발로 인한 일자리 대체 가능성 규모는 상위 20%가 대체 될 경우 약341만개라고 한다. 이 정도 규모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에 충분하다. 다음은 일자리문제에 대한 기사의 내용이다.

“이제 인공지능(AI) 세상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로봇이 정말 몇몇 일자리를 대체하는 세상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세계적인 투자 은행 ‘골드만삭스’는 생성형 AI가 일자리의 4분의 1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특히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선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 3억 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책 ‘로봇 규칙: AI는 어떻게 모든 것을 변화시킬까’의 저자이자 미래학자인 마틴 포드는 끔찍한 상황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봇의 일자리 대체는) 단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포드는 “수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꽤 갑작스럽고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즉,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행히도 암울한 소식만 있는 건 아니다. AI의 일자리 대체를 경고한 전문가들 또한 AI가 할 수 없는 일들도 여전히 있다고 덧붙인다. “

[BBC NEWS코리아 케이트 모건 "내 일자리 AI에 뺏기지 않을까?" 중-](#)

2-2 (소주제)-두 번째는 A.I개발과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부정적인 부분도 같이

개발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한 인공지능회사가 만든 인공지능 챗봇인 “이루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다. 다음은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의 문제점에 대한 기사이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은 이루다가 실제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도록 방대한 대화 데이터를 입력해 딥러닝 방식으로 학습시켰다.

이를 위해 업체 측은 실제 연인들 간의 대화 데이터를 활용했는데, 기존에 이 업체가 서비스했던 ‘연애의 과학’ 앱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였다.

연애와 관련된 조언 등을 주제로 한 ‘연애의 과학’은 연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입력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분석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했다. 예를 들어 연인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나눈 대화를 입력하면 이를 분석해 ‘연인 간 애정도’는 물론 ‘올해 행복했던 순간들’, ‘올해의 키워드’ 등을 정리해서 알려준다는 것이다.

“연인 이름 부르니 실제 내 이름 답해”

문제는 수집된 데이터 속 개인정보가 이루다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이용자는 지난 9일 트위터에 ‘이루다봇 운영중단’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이루다와 나눈 대화 캡처를 올렸다.

이용자가 이루다에게 주소를 물어보자 실제 존재하는 주소를 불러준 것이다. “

[서울신문 신지호기자 2021-01-11 10:07 '이루다'에 우리집 주소가?...실제 카톡 대화 활용 논란 중-](#)

3-1 반론-인공지능 개발 찬성측 의견 “첫째, 생산의 효율성. 인공지능이 육체적, 정신적 노동에 대체함으로써 생산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쇼핑을 하면 드론으로 제품을 배달한다.’ 아마존닷컴의 택배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오스본과 프로이 연구의 의하면 20년안의 사무직 노동의 50%가 로봇으로 대체되어 대신 일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하게 될 것. 둘째,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함으로써 인간은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인간은 오랫동안 노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더욱 의미있는 삶을 추구하게 되고, 인간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통제가능.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이기에 통제가 가능할 것.오히려 우리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bluett2/220763664299> 윤일경- (디베이트2) 인공지능의 발전-찬반 중-

3-2 재반론-첫 문장부터 반론을 해보자면

1. **일자리 감소와 경제적 영향.** 드론이 쇼핑을 해준다는 아마존닷컴의 택배이야기는 분명 생산성을 향상시키지만 사무직 노동의 50%가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것은 일부 분야에서는 인간 노동력이 불필요해지면서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

2. **인간의 가치와 정체성 상실.** 일자리를 통해 자아실현과 사회적 정체성을 찾는 경우,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인간은 노동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 노동은 자기 개발과 사회 참여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를 잃게 되면 사회적 문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3. **인공지능의 통제 불가능성.** 현재의 인공지능은 기계 학습 및 신경망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종종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기도 하는데, 특히 알고리즘이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그럴수 있는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 하지만 찬성글에서처럼 이 이유들을 생각지 않고 단지 사람이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공지능의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4. 결론:

따라서 인공지능개발로 인한 일자리대체 문제, 동시에 개인정보유출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증가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인공지능개발을 멈춰야 한다. 만약 인공지능개발을 계속 진행시키기 위해선 개인정보 보호수단강화와 인공지능의사나 인공지능교사 등의 일자리대체 문제가 될 개발이 아닌 사람들의 편의성을 위한 개발을 하여야한다.최근 개발된 챗gpt는 일자리대체를 위협한다기 보단 오히려 여러 기업들에서 시간관리 개선, 의사결정 속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한다.

참고 문헌:

<https://www.ekoreanews.co.kr> 이코리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11500029> 서울신문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51lkkwk08ko> BBCNEWS 코리아

<https://m.blog.naver.com/bluett2/220763664299> 블로그